

+ 방송과기술 편집부

KOBA 2009 Review



KOBA 2009 전시회 참관객 수(총 40,514명)

26일 : 7,629명 / 27일 : 9,637명 / 28일 : 11,573명 / 29일 : 11,675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이앤엑스가 공동주최하는 'KOBA 2009' 행사는 "Wake Up Your Digital Emotion(당신의 디지털 감성을 깨워라)"의 주제로 5월 26일(화)부터 5월 29일(금)까지 열려 방송·통신 융합과 디지털 방송 시대의 미래를 진단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했다.

이번 KOBA 2009는 여느 행사보다 한층 다양해진 전시와 탄탄한 주제의 컨퍼런스로 방송인뿐만 아니라 예비 방송인들의 참석을 이끌었다. 또한, 방송 장비의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전시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방송 문화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첫 날 마련된 개막식과 오찬 행사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송도균 부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 김창수 의원, 김을동 의원 등 많은 방송·통신계 인사들이 참석해 KOBA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기술, 정책 등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알찬 시간이 됐다.

올해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전시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KBS는 가상스튜디오를 부스 내 설치해 관람객들이 가상스튜디오에 올라와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MBC는 '알라딘'이라는 라디오 이동 스튜디오를 전시해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드라마 '선덕여왕'을 활용한 특수 영상 코너도 준비해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EBS는 MMS를 통한 영어교육 방송을, CBS는 교회전용 멀티미디어 시스템인 Prizm 등을 선보였다.

컨퍼런스는 지난해보다 더 알찬 커리큘럼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컨퍼런스를 주관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24개 세션 80여개의 주제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컨퍼런스는 주제의 탄탄한 구성으로 방송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미래의 방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방송, 통신계의 민감한 현안인 디지털 전환, IPTV, CATV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방·통 융합시대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세계 방송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ATSC, DVB, NHK, World DMB 포럼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초청된 강사들의 강의를 들은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전 세계적인 방송기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매년 향상되고 있는 컨퍼런스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재명 회장은 "이번 KOBA 2009 컨퍼런스는 현장기술과 차세대 방송기술에 집중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내년에는 매체간의 균형적인 발전방안 모색과 디지털 방송장비의 국산화 정책을 집중 조명하고, 발전방안도 제시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KOBA 2010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더욱 사랑받는 KOBA 2010 행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KOBA 2009 Exhibition

Wake Up Your Digital Emotion

GF Series Workflow Innovation

동화 A/V(주) www.dhav.co.kr



동화 A/V(주)는 창립 이후 오직 한가지 신념을 가지고 한국방송시장의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 고객과의 신뢰,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이 어느덧 30년이 되었으며, 그동안의 노력이 많은 부분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21세기는 과거에 비해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고, 그 규모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동화 A/V(주)는 한국 방송의 성공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73년 동화무역으로 시작해 현재 30여 곳 이상의 거래확대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방송 장비 중 최고의 솔루션으로 동종업계의 혁신을 유도하는 Win-Win Company가 거듭나고자 한다. 동화 A/V는 고객지향적인 마인드를 통한 기업의 효율 및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업무영역의 다각화 및 복합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송 시스템의 충실한 동반자이다.

좀 더 나은 방송환경을 만들고자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아간다



Portable Flash Memory Recorder GFS-P10



GF STATION을 슬로 모션 재생용으로 활용

일본 방송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품인 IKEGAMI,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SHOTOKU, Switcher 장치로 유명한 Video Tron, 선거방송 및 Virtual Graphic으로 MBC, KBS 등 각 방송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Brainstorm 그밖에 Shibasoku, ISIS, Trilogy 등 뛰어난 업체와 해외 파트너를 맺어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미래지향

친환경을 인류 최상의 과제로 인식하고 전자제품의 무역, 영업 및 고객관리 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지속적인 보존 활동을 하고 있다. 각 나라의 제조업체로부터 친환경적인 방송 시스템을 수입,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류 최상의 과제인 지구환경 보존에 이바지 할 것이다.

제품만족

제품 만족 경영은 최고 방송기술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경영실천 전략이며 이념이다. 이러한, 경영 이념으로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고객과의 두터운 신뢰, 21C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영 이념은 어느덧 좀 더 나은 서비스와 깨지지 않는 신뢰를 쌓게 되었고, 저희가 받는 신뢰는 책임감을 인식하도록 주어지는 채찍이라는 일념 하에 변함없이 한국 방송에 큰 힘이 될 것이다.

RED 카메라와 오토데스크 편집 소프트웨어 간의 파이프라인 구축 워크플로우

오토데스크 www.autodesk.co.kr

Autodesk®

RED 카메라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강력한 해상도로 최근 많은 제작사들이나 방송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해상도에 비해 복잡한 R3D파일 구조로 원활한 제작 작업을 위한 표준화 변환과정이 어렵다.

보다 신속한 시작과 마무리 작업은 제작 아티스트, 영상 편집 마무리 분야, 방송·영화, 광고계, 프로덕션에 있어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에 오토데스크는 아티스트들의 수고를 덜고 최상의 컨디션과 속도를 제공하는 RED 카메라 파일 워크플로우를 2010 버전에 탑재해 NAB2009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Autodesk® Smoke® 버전은?



Autodesk® Smoke® 소프트웨어는 RED와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0 버전은 창의적 도구 세트가 광범위해지고 형식

지원의 폭이 넓어졌으며 타사 응용프로그램과의 상호 운용성이 향상됐다.

Smoke 편집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Conform, 편집 및 합성 도구를 하나의 통합 모음으로 제공한다. 차별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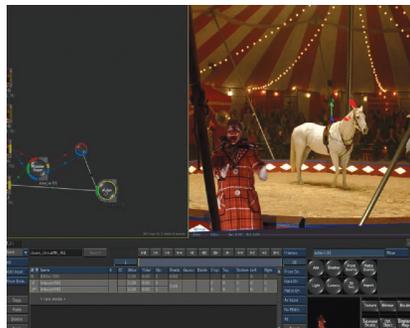
Smoke는 창의력을 자유롭게 빠르게 실현시켜 준다. Conform, 편집, 오디오, 페인트, 추적, 캐릭터 생성, 그래픽 디자인 및 시각 효과 생성을 위한 강력한 64비트 아키텍처와 업계 최고의 도구가 포함



되어 있는 Smoke 소프트웨어는 Action 3D 합성 환경과 마스터 키어 및 Colour Warper™ 기술을 활용한다.

Batch* 기능을 통한 단계적 합성 환경은 타임라인과 영상효과간에 워크플로우를 수립해 원활한 영상 효과 중심의 마무리작업을 지원한다.

RED 카메라와 Smoke간의 워크플로우



오토데스크의 Smoke 2010에는 Wiretap Central이라는 제품이 포함되어있다. 본 제품은 상호 운용성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많은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용자들은 Final Cut Pro의 XML, Avid의 DNxHD, Open EXR 또는 RED R3D등의 거의 모든 업계 표준 파일들을 자동으로 Transcode해주는 기능을 무료로 제공 받는 것이다.

이는 오토데스크가 지향하고 있는 개방형 표준 워크플로우의 한 일환으로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매우 효율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소니 코리아 XDCAM HD422 신제품 라인업

소니 www.bp.sony.co.kr

SONY

소니는 2008년 KOBA를 통해, 하이 엔드 기종인 XDCAMTM HD422 시리즈를 선보인 바있다.

XDCAM은 높은 신뢰성과 장시간 기록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Professional DiscTM 미디어를 활용한 파일 기반 운용의 시스템으로 그 성능을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도 빠른 시간에 채택 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MPEG HD422 코덱은 XDCAM HD422 시리즈 제품에 1920×1080의 해상도 이미지로 얻어지는 고품질 비디오와 8채널 24비트의 고품질 비압축 오디오를 제공한다.

2009년 NAB와 KOBA를 통해 소니는 XDCAM HD422 시리즈 라인업에 새로이 파워풀한 3가지 신제품을 소개하는데, 이들은 PDW-F800 캠코더와 PDW-F1600 레코딩 데크, 그리고 PDW-HR1 필드 스테이션이다. 이들은 모두 SD 포맷 레코딩 및 1080 모드에서의 23.98P 레코딩이 가능한 제품으

로, 멀티 포맷 레코딩의 유연성을 스탠다드로 탑재 하고 있다.

PDW-F800 캠코더는 PDW-700 캠코더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진화된 제품이다. Slow & Quick 모션(오버 크랭크 및 언더 크랭크)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된 성능은 ENG 운용뿐만 아니라 영화 및 TV 드라마의 활용에도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23.98P 네이티브 레코딩을 기본으로 지원하는 소니의 CineAlta 제품으로, 2/3 인치 1920×1080의 3 CCD를 기본으로 XDCAM HD422 포맷 및 SD (IMX, DVCAM) 포맷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이엔드 기종 답게 User Gamma, 광학 CC/ND 필터, 뷰파인더 이미지 컨버터 등을 채택했다.

PDW-F1600 레코딩 데크 역시 PDW-HD1500 데크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파일 기반 레코딩 이상의 기능들이 통합되었는데, 데크로부터 지원되는 인서트/어셈블 편집 기능을 통해 기존의 VTR과 동일하게 리니어 편집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사용자는 소니의 XDCAM HD422 레코딩 데크를

1:1 편집환경의 레코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XDCAM 데크 2대간의 1:1 편집도 가능하게 되었다. 역시 소니의 CineAlta 하이엔드 제품이다.

기존 출시된 XDCAM 제품의 SD급 필드 레코더와의 차이를 두며, 새로이 개발된 PDW-HR1 XDCAM HD422 필드 스테이션은 현장에서의 운용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9 인치 WVGA LCD를 통해, 소재는 현장에서 즉각 모니터링 되고, 본체에 탑재된 다양한 기능의 GUI는 조작이 용이한 운용성을 제공한다.

PDW-HR1은 베이스밴드 비디오 (컴포지트, HD/SD-SDI), 기가비트 이더넷, MPEG TS, DVB-ASI 및 HDMI를 포함한 다양한 범주의 신호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호환성을 바탕으로 XDCAM HD422 시리즈의 활용 영역을 보다 확장시킨 제품이다.

이러한 신제품 라인업을 통해 소니는 XDCAM 포맷을 통해 전반적인 HD의 취재/제작 워크플로우의 혁신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제품들의 출시는 2009년 7월이다.



[좌로부터 PDW-F800, PDW-700, PDW-F1600 (상), PDW-HD1500 (하), PDW-HR1, PDW-U1]

분야별 특성에 최적화된 방송용 그래픽 솔루션 V-Series

비주얼리서치 www.vri.co.kr



방송용 온 에어 그래픽 솔루션 전문 개발 업체 (주) 비주얼리서치는 KOBA 2009를 통해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그래픽을 바탕으로 뉴스, 기상, 스포츠, 증권, 흡소핑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솔루션을 소개했다.

V-Series

뉴스, 기상, 스포츠 등 여러 방송 분야별로 최적화된 기능을 탑재한 V-Series는 7개의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뉴스기사와 시계, 로고, 하단자막 등 여러 개의 콘텐츠를 동시에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V-News, 기상 데이터를 수신해 데이터와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V-Weather, 스포츠 종목별로 필요한 모든 이벤트의 처리가 가능하고 다이나믹한 애니메이션의 표현이 가능한 V-Sports, 증권데이터 처리와 다양한 템플릿을 보유한 V-Stock이 있다. 또한 흡소핑 채널을 위한 V-Homeshopping, 경마, 경정, 경륜에 특화된 V-Race로 구성된다.

이외에 전시회를 통해 처음 소개 되는 V-NLE는 디지털화 돼가는 방송환경과 워크플로우의 변화로 인해 NLE 장비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NLE와의 자막연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방송 콘텐츠의 다양화에 발맞춰 방송사의 제작방식 또한 특성화 되고 있다. V-Series는 디지털 방송 전환이 가까워짐에 따라 변화하는 방송 워크플로우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 방송 그래픽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솔루션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아울러 각 방송사 별 특성과 작업흐름 등을 고려

해 각각의 제품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SmartCG



KOBA 2009에서는 국내 최초 HD 보드형 문자발생기 SmartCG를 출시한다. 기존 자사의 보드형 아날로그 문자발생기 VisualCG보다 대폭 향상된 기능

으로 SD에서부터 HD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한 문자 발생기다.

Blackmagic사의 Decklink Extreme 3를 기반으로 설계된 SmartCG는 HD/SD 멀티포맷을 지원하며 수 백여가지에 이르는 이펙트와 로고, 시계 동시 송출 기능, 유니코드 기반의 다국어 지원, PPT 파일 지원, 동영상 송출, 객체별 레이어 효과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었다. 또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회자막 입력 기능도 탑재 되었으며 SDI, Component, HDMI 신호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Extreme 3 보드를 제공함으로써 Premiere Pro, After Effects, Photoshop 등 어플리케이션의 플러그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NLE 작업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Easy UI를 적용해 사용자의 작업 흐름을 고려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HD RADIO 송신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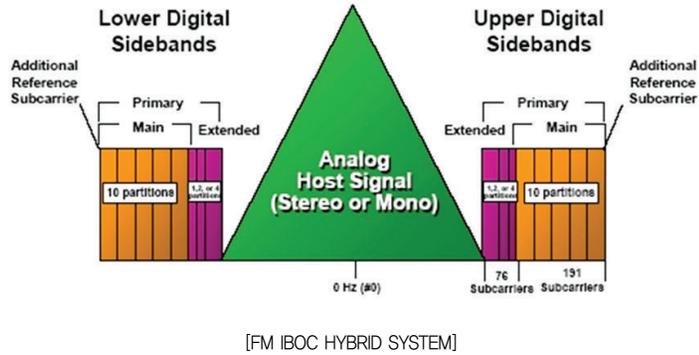
(주)브이아이텔레콤 www.visionte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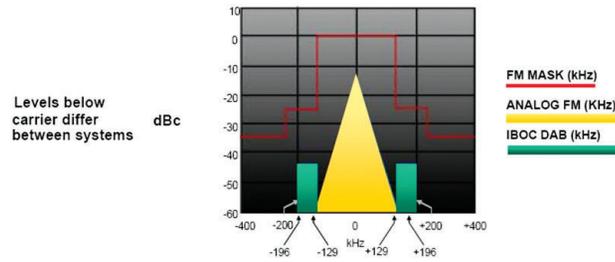
HD RADIO는 미국의 IBiquity사의 IBOC(In-Band On-Channel)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국식 Digital Radio 전송 방식이다. 현재 HARRIS사는 한국에서도 신뢰성을 인정받은 아날로그 FM과 AM 송신기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HD RADIO 송출을 위한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의 HD Radio 송신소는 1700개소 이상이고, 800개 이상의 Multicast 채널이 이용 가능하며 전 미 청취자의 80% 이상이 HD Radio방송 청취가 가능하다. HARRIS사의 HD RADIO 제품들은 전 세계 점유율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HD RADIO의 주요 특징

1. 기존의 AM·FM 주파수 대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In-Band)
 -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 옆에 디지털신호를 배치 (HYBRID IBOC방식)하므로 별도의 주파수 대역 없이도 아날로그·디지털 동시방송을 통한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
2. 새로운 송신소나 송신탑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음
 - 기존의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므로
3. 아날로그 FM 방송의 Audio Quality가 5.1 Surround Sound 급으로 향상
4. 아날로그 AM 방송의 Audio Quality가 FM Stereo 급으로 향상
5. Advanced Data 서비스 가능(Enhanced PAD, PID, LBM; Local Based Messaging, 부가적인 HD Radio Audio 서비스; Multicasting)
6. FM DAB에서의 Multipath Distortion 제거
7. AM DAB에서의 Impulse Noise/ Fading 제거



[FM IBOC HYBRID SYSTEM]



[PROPOSED FM HYBRID IBOC DAB SPECTRUM]

Combining 방법

1. Common Amplification (Low Level Combining)
 - 장점: 하나의 송신기만을 이용하여 공간 절약되며 시스템 구성이 용이함
 - 단점: Linear Amp와 Mask Filter가 필요
2. Separate Amplification(High Level Combining)
 - 장점: IBOC Hybrid의 아날로그 부분을 위해 기존의 아날로그 송신기를 사용할 수 있음
 - 단점: 구성하기가 복잡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
3. Space Combining(Separated Antennas)

- 장점: Combiner가 필요 없고 이에 따른 loss가 없음.
 - 단점: 추가적인 안테나 설치 비용 발생하고 coverage와 performance에서 불안정
4. Split Space Level

Spect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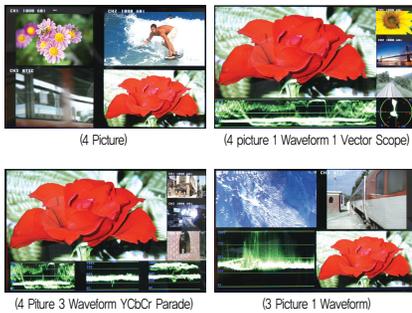
1. Digital Data가 LSB와 USB에서 변조(각각 67KHz의 대역을 가짐)
2. -44dBc에서 5~6dB의 Peak To Average Ratio를 갖는 OFDM Carrier
3. CD Quality Audio를 위한 96Kps의 Data Rate

멀티포맷 쿼드 디스플레이 모니터 LQM-071W, LQM-171W, LQM-241W

티브이로직 www.tvlogic.co.kr

TVlogic

티브이로직은 좁은 공간에 효율적인 비디오 모니터링을 위해 한 개의 모니터에 4개의 비디오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멀티포맷 쿼드 모니터를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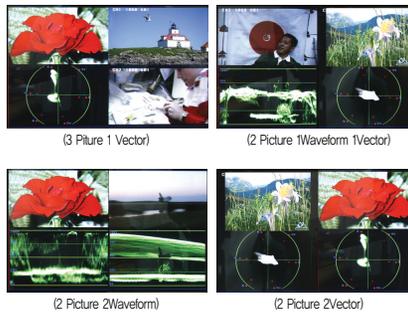


티브이로직의 LQM-071W(7인치), LQM-171W(17인치), LQM-241W(24인치)는 다양한 크기의 멀티포맷 4채널 디스플레이 모니터로서 HD-SDI, SD-SDI, 아날로그 컴포지트를 비롯한 비디오 디스플레이와 Waveform, Vector Scope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방송국 모니터링시스템에 사용하기 적합한 모니터이다.

티브이로직 쿼드 디스플레이 모니터는 HD-SDI, SD-SDI, 아날로그 컴포지트 등 방송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신호를 동시에 4개까지 입력해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4채널 디스플레이 모니터이다. 단순한 비디오 디스플레이 이외에 비디오 신호별 웨이브폼과 벡터 스코프, 오디오 레벨미터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밖에 타임코드, 소스 ID, 각종 마커 등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HD 및 SD 방송 모니터링에 적합한 제품이다.

7인치 LQM-071W는 프레임이 알미늄 다이캐스팅 금형으로 제작되어 정밀하고 가볍고 견고하며, 19인치 3RU에 2대를 설치하면 8개의 비디오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17인치 LQM-171W는 프라스틱 몰드를 사용해 가벼우며 19인치랙 7RU에 설치하기 편리하도록 디자인되었다.

24인치 LQM-241W는 금속케이스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으며 19인치랙 설치도 가능하다. 현재 이제품들은 CNN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 각국의 방송국에서 다량 사용하고 있다. LQM-071W와 LQM-171W의 경우 그림과 같은 다양한 화면 구성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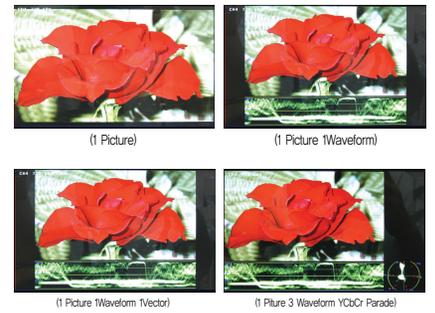
4개의 비디오 입력

4개의 비디오 입력에는 HD-SDI, SD-SDI, 아날로그 컴포지트 신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즉, 동일한 BNC 입력단자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각종 디지털 포맷과 아날로그 신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멀티 포맷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다.

SDI 비디오 출력

비디오 출력은 입력된 4개의 비디오신호중 1개를 메뉴에서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다. 이때 선택된 채널



이 아날로그 컴포지트일 경우에는 디지털 비디오로 변환해 출력된다.

즉, 아날로그 컴포지트 신호를 SD-SDI신호로 변환하는 AD 컨버팅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스테레오 오디오 입출력

스테레오 오디오 출력은 디지털 비디오에 임베디드되어 있는 16채널중에 선택된 오디오를 아날로그로 출력할 수 있으며 오디오 입력은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

EPG의 미래 : 쉬운 “내 콘텐츠 찾기”

NDS korea.nds.com



현재의 EPG(전자프로그램 가이드)가 계속 증가하는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 미래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직감적이고 사용자 편의적인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새로운 추가 기능들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까?

세계적인 엔드 투 엔드 방송 솔루션 제공사인 NDS (<http://korea.nds.com>)의 상품 마케팅 매니저인 보 발스테트는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자 한다. 보가 이끄는 EPG와 UI솔루션 그룹은 현재와 미래의 선진화된 방송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품의 전략을 세우고 실현하고 있다.

도전 : 더 많은 콘텐츠와 기능 제공

보 발스테트는 “현재 유료방송 산업은 미래의 EPG 제공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실상 오늘날의 표준 EPG들은 가입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시청할 것인지, DVR에 예약 녹화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드(Grid) 방식에 기반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그리드 방식의 EPG는 기존 채널 TV 방송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어 있지만 이 방식은 앞으로 제공될 다양한 가입자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형 서비스에는 채널 TV 방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녹화된 콘텐츠 시청, VOD 서비스, IPTV 등 매우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방송 시간이나 서비스 형태에 구애 받지 않고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EPG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신규 가이드

(EPG) 필요

보는 현 EPG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복잡성을 들며, 시청자들이 즐기기를 위한 콘텐츠를 찾는 것이 벅찬 ‘일’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채널 서비스, VOD, 녹화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각기 다른 검색 방식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EPG의 방향성

보 발스테트는 다양한 고객들이 다양한 콘텐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미래의 EPG는 좀 더 시각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와 그의 팀은 몇몇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번째는 TV 시청 패턴에 어울리면서도 흥미로운 콘텐츠 검색(표현) 방식을 어떻게 제공하는 가에 대한 것이다.

EPG의 미래

무수히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를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보는 이 가운데 NDS의 인피니티비(InfinitiveTV™)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인피니티비가 제공하는 검색 메커니즘은 TV와 PMP 등 다양한 단말로의 콘텐츠 전송을 용이하게 하여 컨버전스 시대에 걸맞는 EPG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시청자들은 오직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만 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청환경은 각 셋탑박스에서 시청자에 대한 개인 선호도나 취향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는 시각적인 검색엔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주장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보와 NDS가 추구하는 EPG의 방향성에 따라 구현되는 컨버전스 시청환경의 미래가 기대해볼게 되었다.

ZAXCOM FULL DIGITAL TRANSMITTER

동양디지털 www.idyd.com



로케이션용 하드디스크 멀티 레코더로 유명한 미국의 ZAXCOM사에서 새롭게 개발한 풀 디지털 트랜스미터 TRX 시리즈를 선 보인다.

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는 기존의 트랜스미터의 허를 찌르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아닌 인터날 레코더의 장착이다.

보통 어떠한 무선기이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잡음의 발생 및 최악의 경우 소스가 끊어지고 마는데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오디오 엔지니어는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된다.

TRX900

TRX900 트랜스미터의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해도 소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트랜스미터 자체에 SD카드로 12시간 이상 녹음을 할 수 있는 인터날 레코더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정에 따라서 타임코드의 녹음도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다.(생방송의 경우는 제외)



이 특징 외에 다른 트랜스미터는 생각지 않은 기능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옵션으로 IFB 리시버를 장착하여 미니어처 크기의 트랜스미터에서 IFB기능도 수행 하는 것이다.

리포터의 경우 트랜스미터에 IFB를 주렁주렁 차게 되는데 TRX의 경우 간단히 한 대만 차면 해결 되는 것이다.

IFB는 2.4GHz를 사용하기 때문에 UHF대역을 사용하는 트랜스미터부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제품특징

- Built-in Receiver
- Digital modulation wireless transmitter
- Superb audio quality that rivals a hard wire
- RF remote control of body pack
- 12 hour internal recording with Time Code
- Digital drop-out protection
- 2 ms transmission delay
- 5 hour running time on single 123 battery
- Graphic LCD display
- Integrated Time Code transmission



- Small and lightweight
- No inter-modulation-up to 50 transmitters in the same frequency block can us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RX900AA의 경우 옵션의 스테레오 아답터와 RX900S트랜시버와 같이 운용하면 스테레오 트랜시버로 변신하게 된다.

QRX100이라는 4채널 소형 리시버도 있어 소형, 경량, 저비용의 시스템 구성이 원활한 것도 큰 장점이다.